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다그쳐 끌내자

질보장의 과학적인 방도를 찾아줘

태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
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태천군인의 농장들에서 모내기
전투가 마감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말씀과 어려운 영광의 땅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온 군일
군들과 농업군로자들의 불사
열의 속에 협동력이 더욱 뛰어나
가고 있다.

이 성과는 모내기时节에
질적으로 끌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도를 찾아내고 전투조직과 지
휘를 새기기 위해 벌여나가고 있는
군일군들의 일본세를 떠나서 생
각할 수 없다.

**기술적 요구를
정확히 따져보며**

기술적 요구에 맞는지 않는
가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실천할
것, 이것이 모내기时节을 위한
군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포전별로 적기를 정하고 모내기
를 시작하도록 한 것이 그 대표적
실례다.

군일군들은 모내기전투의 성과
적보장을 위한 각진을 세우는데서
적기선행에 힘을 넣었다. 지난 시
기 경합에 기초화하였다. 더욱이
울해 불후기후조건이 불리한 편에
부여 이를은 여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

과학농사의 시대인 오늘 날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
대로 적기선행, 적기적작의 원칙
을 철저히 지키자. 이런 관점에서
군일군들은 포전들을 밟아가면서
적기선행실태를 보여하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이들은 농장들에서 벼모생육
상태에 따라 모내기적기일이나
에 도달하는 시기를 예측하고
그에 맞게 모내기일정계획을 세우
도록 하였다.

특히 지난 시기처럼 모가 모
판에서 자란 기일이 아니라 품
종별, 모종류별로 기준일수에
도달하게 되는 날짜와 해당 지역
의 기후 및 토양조건을 놓고
모내기적기일정계획을 세우
지도를 따라왔다.

군일군들은 지역수준에 따라
적기선행을 바로하도록 하였다.
군에는 모내기가 많아 세미씨 기
풀을 하는 차례로 모를 내야 할 포
전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세미씨
기풀을 한 다음 일정한 기일이
지나 모를 내야 할 포전들도 있다.
이로부터 이들은 농장들에서 포
전별로 따져보고 모내기날짜를
바로 정하도록 하였다.

군일군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수준에 따라 모종류선택도
바로하였다. 이들은 흰모제재배
법을 위주로 하면서 지역수준에
따라 단지보에 의한 세비방법도
폐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 및 토양조건,
모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규정하
도록 하였다.

적기보장에 앞과 종수의
예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한 농업
군로자들은 포전별 특성에 맞게
정확히 세워진 일정계획대로
모내기전투장마다에서 드시찬

공격전을 벌여나갔다. 농사에서
군일군들의 책임성 문제는 단순한
실무적인 실천이 아니라 당시의
농업정책을 완璧히 하는 곳이라는가
하는 정치적 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들은 농의를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다녀온
편집물을 가지고 기술지도의 효
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게 되었다.

모내기전투를 앞두고 일군들은
다비에 편집물을 풀어마련 허
리를 힘들었다. 그리고 이 편
집물을 가지고 긴장한 행정련무
가 떨어지는데 맞게 농장, 작업
반들에 나가 보여주는 사업을
어려가기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편집물을 보여준 다음에
는 해설사업을 따라세워 농업군
로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때문에 농장을 찾은 것은
이 달라고 생동한 환면을 통해
직접 보여주니 그들이 놀라울
때에서 효과가 있었다.

결과 농장들의 일군들과 농업
군로자들은 기술적 요구를 천만히
알고 신들레를 바짝 조이며 모내
기전투에 신심 있게 펼쳐나서게
되었다.

성과가 오를수록 만족을 모르고
더 비약한 방도를 찾는 일천한 것도

이곳 일군들의 장점이다.

군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이 불
렀는 흐름에 나가 수시로 제기
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따라 기술지도를 하여 앞선

영농법법을 받아들이면서 차이
를 짜고 농장들을 담당한 일군들이
서로 다른 농장에 나가 실례를 토론하는
과정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더 잘 알고 대책을 세우

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경합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물론 단위들사이
경쟁의 힘을 높였다. 그리고 이 편
집물을 가지고 긴장한 행정련무
가 떨어지는데 맞게 농장, 작업
반들에 나가 보여주는 사업을
어려가기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편집물을 보여준 다음에
는 해설사업을 따라세워 농업군
로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때문에 농장을 찾은 것은
이 달라고 생동한 환면을 통해
직접 보여주니 그들이 놀라울
때에서 효과가 있었다.

농장에서는 모내기전투장과
모내기전투장을 페어링으로
제작하여 페어링을 통해 농장
원만히 모내기전투장을 암호화
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군사기자 방영 전

듯 깊은 울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겨 올

드높은 열의안고 떨어져나
선 인주시 우학련동농장
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기본면적의 모내기 토
제기제로 끌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모내기는 깊이 보장문제를
중시하고 실한 벼모들을
정성껏 조성해 농장원들이
다수화를 위한 또 하나
의 담보를 마련한 것으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
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로부터 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일군들은 공장원들죽에 들어가
모내는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이 대하여 타
시금 일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모내는 깊이
를 바로 보장하는데서 모내기전
투장을 할하는 사업을 중시하고
임을 넣었다.

『일군들은 자기 부
분, 자기 단위의 일은
돌은 물을 험시킬 때에
제기제로 넣은 것은
아니가 합니다.』

농장에서 모내기 가
시작되었을 때였다.

들리는 흐름을 돌아
보면 깊임과 험시킬 때에
제기제로 넣은 깊이는 정확히
보장하는 사업에서

기술규정을
철저히
지켜
시켜

기술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는 중요
한 계기
가 되어
야 한다.

모내기전투를
앞두고 일군들은
다비에 편집물을
풀어마련 허
리를 힘들었다.
그리고 이 편
집물을 가지고
긴장한 행정련무
가 떨어지는데 맞게 농장, 작업
반들에 나가 보여주는 사업을
어려가기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편집물을 보여준 다음에
는 해설사업을 따라세워 농업군
로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군사기자 방영 전

치는데 지향을 받게 된다. 민대
로 얹게 끌리는 경우에는 뿐리가
토양속으로 깊이 빙어내리는데
일정한 기일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모살이 깊이 갈아서 용당
한 소출을 '수수롭게' 된다. 결국
모내는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는
것은 더 많은 일과를 증수할 수
있는 방도로 되지 않겠는가.

이로부터 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일군들은 공장원들죽에 들어가
모내는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이 대하여 타
시금 일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모내는 깊이
를 바로 보장하는데서 모내기전
투장을 할하는 사업을 중시하고
임을 넣었다.

『일군들은 자기 부
분, 자기 단위의 일은
돌은 물을 험시킬 때에
제기제로 넣은 것은
아니가 합니다.』

농장에서 모내기 가
시작되었을 때였다.

들리는 흐름을 돌아
보면 깊임과 험시킬 때에
제기제로 넣은 깊이는 정확히
보장하는 사업에서

기술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는 중요
한 계기
가 되어
야 한다.

문화모임때마다 농장일군들은
작업방법 그 그림을 보장하는데
모내는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이 대하여 타
시금 일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모내는 깊이
를 바로 보장하는데서 모내기전
투장을 할하는 사업을 중시하고
임을 넣었다.

『일군들은 자기 부
분, 자기 단위의 일은
돌은 물을 험시킬 때에
제기제로 넣은 것은
아니가 합니다.』

농장에서 모내기 가
시작되었을 때였다.

들리는 흐름을 돌아
보면 깊임과 험시킬 때에
제기제로 넣은 깊이는 정확히
보장하는 사업에서

실정에 맞게 정한 평당

풀군자하 협동농장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포전의 비단도에 태군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과학
기술적 요구에 맞게 정해놓고
모내기를 하여야 합니다.』

장풍군 자하협동농장의 일군
들이 모내기에서 평당 포기수보장

에 대한 관심을 둘리게 된
계기가 있었다.

지난해 농사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면서 과정에 한가지 중요
문제를 조작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자연기후조건과 토양의
성질, 모종류별 특성에 맞게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
었다.

군일군들은 모내기전투의

성과를 위한 각진을 세우는데서
적기선행에 힘을 넣었다. 지난 시
기 경합에 기초화하였다. 더욱이
울해 불후기후조건이 불리한 편에
부여 이를은 여기에 선차적인

실례다.

군일군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수준에 따라 모종류선택도
바로하였다. 이들은 흰모제재배
법을 위주로 하면서 단지보에 의한
세비방법도 폐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 및 토양조건,
모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
었다.

군일군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수준에 따라 모종류선택도
바로하였다. 이들은 흰모제재배
법을 위주로 하면서 단지보에 의한
세비방법도 폐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 및 토양조건,
모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
었다.

군일군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수준에 따라 모종류선택도
바로하였다. 이들은 흰모제재배
법을 위주로 하면서 단지보에 의한
세비방법도 폐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 및 토양조건,
모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
었다.

군일군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수준에 따라 모종류선택도
바로하였다. 이들은 흰모제재배
법을 위주로 하면서 단지보에 의한
세비방법도 폐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 및 토양조건,
모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
었다.

군일군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수준에 따라 모종류선택도
바로하였다. 이들은 흰모제재배
법을 위주로 하면서 단지보에 의한
세비방법도 폐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 및 토양조건,
모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
었다.

군일군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수준에 따라 모종류선택도
바로하였다. 이들은 흰모제재배
법을 위주로 하면서 단지보에 의한
세비방법도 폐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 및 토양조건,
모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
었다.

군일군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수준에 따라 모종류선택도
바로하였다. 이들은 흰모제재배
법을 위주로 하면서 단지보에 의한
세비방법도 폐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 및 토양조건,
모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
었다.

군일군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수준에 따라 모종류선택도
바로하였다. 이들은 흰모제재배
법을 위주로 하면서 단지보에 의한
세비방법도 폐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 및 토양조건,
모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
었다.

군일군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수준에 따라 모종류선택도
바로하였다. 이들은 흰모제재배
법을 위주로 하면서 단지보에 의한
세비방법도 폐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 및 토양조건,
모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당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로 자라나는 조선소년단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대원수님의 학습과 함께 학습률을 높여야 한다. 그의 학습률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래양을 따르는 데 바탕으로 대원수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적극 마련해 우며 불멸의 래양기를 소년단기 앞에 휘날리며 혁명의 평화를 찾으니 이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래양을 높이 모시여 보다 큰 꿈과 희망으로 가슴부풀어온 후대들을 생각하고 그 미래에 발달되 끌없이 풍성번영하는 강성조선의 래일을 확신하게 그려본다.

그렇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속에서 수백만 소년 단원들이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소년단의 한성원이 된 크나큰 사랑과 영광을 얻어온 6월 6일이어서 우리 인민의 걱정은 더욱 크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 인민 모두가 소년단기

를 비바보며 조국에 첫 행세

를 다지었고 소년단조직 생활을 통해 그 행세를 지키기 위한 첫 정치생활을 하면서 온 나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영웅들로, 브록혁신자들로, 일군들로 어하게 성장하지 않았던가.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과 래일도 생각한다.

위대한 래양을 높이 모시여 보다 큰 꿈과 희망으로 가슴부

풀어온 후대들을 생각하고 그

미래에 발달되 끌없이 풍성번영하는 강성조선의 래일을 확신하게 그려본다.

그렇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속에서 수백만 소년 단원들이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소년단의 한성원이 된 크나큰 사랑과 영광을 얻어온 6월 6일이어서 우리 인민의 걱정은 더욱 크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 인민 모두가 소년단기

주며 영원히 살아있다.

이들뿐이 아니다.

숲속에 뛰어들어 조국의 푸른 숲을 구원하고 끊임을 생울마친 리창도학생의 뒤를 이어

몇 해 전 3월에는 고향땅의 키

중한 산림을 구원하는 길에 한

목숨바친 청평군의 리금성학생

이 새 세대 소년단원들의 고귀

한 정신세계를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결코

정에서만 배우며 성장하는것이

아니다.

혁명의 성과 배우면서

나간 청암구역의 소년단원들

과 수업을 끌어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불붙는 숲에 뛰어들어 나파의 거운 풍물에 쟁여온

용감하게 풀을 끊어온 원수님의 품 속에서 수백만 소년단원들이 영광스러운 김금순고금중학교와 라방구역

정오초급중학교의 소년단원들

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수많은 학생소년들이 소년단기를 대오

앞에 날리며 빅두산으로 오르고

주었다.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결코

정에서만 배우며 성장하는것이

아니다.

혁명의 성과 배우면서

나간 청암구역의 소년단원들

과 수업을 끌어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불붙는 숲에 뛰어들어 나파의 거운 풍물에 쟁여온 원수님의 품 속에서 수백만 소년단원들이 영광스러운 김금순고금중학교와 라방구역

정오초급중학교의 소년단원들

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수많은 학생소년들이 소년단기를 대오

앞에 날리며 빅두산으로 오르고

주었다.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결코

정에서만 배우며 성장하는것이

아니다.

혁명의 성과 배우면서

나간 청암구역의 소년단원들

과 수업을 끌어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불붙는 숲에 뛰어들어 나파의 거운 풍물에 쟁여온 원수님의 품 속에서 수백만 소년단원들이 영광스러운 김금순고금중학교와 라방구역

정오초급중학교의 소년단원들

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수많은 학생소년들이 소년단기를 대오

앞에 날리며 빅두산으로 오르고

주었다.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결코

정에서만 배우며 성장하는것이

아니다.

혁명의 성과 배우면서

나간 청암구역의 소년단원들

과 수업을 끌어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불붙는 숲에 뛰어들어 나파의 거운 풍물에 쟁여온 원수님의 품 속에서 수백만 소년단원들이 영광스러운 김금순고금중학교와 라방구역

정오초급중학교의 소년단원들

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수많은 학생소년들이 소년단기를 대오

앞에 날리며 빅두산으로 오르고

주었다.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결코

정에서만 배우며 성장하는것이

아니다.

혁명의 성과 배우면서

나간 청암구역의 소년단원들

과 수업을 끌어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불붙는 숲에 뛰어들어 나파의 거운 풍물에 쟁여온 원수님의 품 속에서 수백만 소년단원들이 영광스러운 김금순고금중학교와 라방구역

정오초급중학교의 소년단원들

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수많은 학생소년들이 소년단기를 대오

앞에 날리며 빅두산으로 오르고

주었다.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결코

정에서만 배우며 성장하는것이

아니다.

혁명의 성과 배우면서

나간 청암구역의 소년단원들

과 수업을 끌어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불붙는 숲에 뛰어들어 나파의 거운 풍물에 쟁여온 원수님의 품 속에서 수백만 소년단원들이 영광스러운 김금순고금중학교와 라방구역

정오초급중학교의 소년단원들

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수많은 학생소년들이 소년단기를 대오

앞에 날리며 빅두산으로 오르고

주었다.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결코

정에서만 배우며 성장하는것이

아니다.

혁명의 성과 배우면서

나간 청암구역의 소년단원들

과 수업을 끌어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불붙는 숲에 뛰어들어 나파의 거운 풍물에 쟁여온 원수님의 품 속에서 수백만 소년단원들이 영광스러운 김금순고금중학교와 라방구역

정오초급중학교의 소년단원들

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수많은 학생소년들이 소년단기를 대오

앞에 날리며 빅두산으로 오르고

주었다.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결코

정에서만 배우며 성장하는것이

아니다.

혁명의 성과 배우면서

나간 청암구역의 소년단원들

과 수업을 끌어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불붙는 숲에 뛰어들어 나파의 거운 풍물에 쟁여온 원수님의 품 속에서 수백만 소년단원들이 영광스러운 김금순고금중학교와 라방구역

정오초급중학교의 소년단원들

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수많은 학생소년들이 소년단기를 대오

앞에 날리며 빅두산으로 오르고

주었다.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결코

정에서만 배우며 성장하는것이

아니다.

혁명의 성과 배우면서

나간 청암구역의 소년단원들

과 수업을 끌어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불붙는 숲에 뛰어들어 나파의 거운 풍물에 쟁여온 원수님의 품 속에서 수백만 소년단원들이 영광스러운 김금순고금중학교와 라방구역

정오초급중학교의 소년단원들

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수많은 학생소년들이 소년단기를 대오

앞에 날리며 빅두산으로 오르고

주었다.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결코

정에서만 배우며 성장하는것이

아니다.

혁명의 성과 배우면서

나간 청암구역의 소년단원들

과 수업을 끌어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불붙는 숲에 뛰어들어 나파의 거운 풍물에 쟁여온 원수님의 품 속에서 수백만 소년단원들이 영광스러운 김금순고금중학교와 라방구역

정오초급중학교의 소년단원들

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수많은 학생소년들이 소년단기를 대오

앞에 날리며 빅두산으로 오르고

주었다.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결코

정에서만 배우며 성장하는것이

아니다.

혁명의 성과 배우면서

나간 청암구역의 소년단원들

과 수업을 끌어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불붙는 숲에 뛰어들어 나파의 거운 풍물에 쟁여온 원수님의 품 속에서 수백만 소년단원들이 영광스러운 김금순고금중학교와 라방구역

정오초급중학교의 소년단원들

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수많은 학생소년들이 소년단기를 대오

앞에 날리며 빅두산으로 오르고

주었다.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결코

정에서만 배우며 성장하는것이

아니다.

혁명의 성과 배우면서

나간 청암구역의 소년단원들

과 수업을 끌어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불붙는 숲에 뛰어들어 나파의 거운 풍물에 쟁여온 원수님의 품 속에서 수백만 소년단원들이 영광스러운 김금순고금중학교와 라방구역

